

맞벌이 가족의 저녁을 여는 서울형 키즈카페 금요일 야간회차 및 실시간 취소석 개방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시장은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임. 야간회차 운영 시에는 실제 근무편성에 따른 연장·휴일근로 여부를 관리하고, 오후 10시 이후 근무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 가산임금을 반영해야 함.
제안배경	○ 서울시는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 정책을 통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문화·체육·관광·상권·교통·안전을 연계하는 서울형 야간경제를 추진하고 있음. ○ 체육시설 야간 운영, 문화시설 야간개방, 반딧불이버스, 야간명소 확대 등 시민의 저녁 활동 기반은 확대되고 있음. 다만 서울형 키즈카페의 평일 표준 운영은 오후 6시에 종료되어, 퇴근 후 자녀와 함께 이용하려는 가정의 선택지는 제한될 수 있음. ○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5년 3월 기준 누적 이용자 65만 명 이상을 기록했으며, 2024년 기준 양육자 만족도는 97.2%, 양육자 재방문 희망은 98.6%, 아동 재방문 희망은 99.5%로 나타남. 높은 이용 수요가 확인된 서울시 대표 가족정책임. ○ 서울시는 이용 수요에 대응해 2024년 주말 회차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고 회차별 수송인원을 늘린 바 있으며, 2025년에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주말 회차를 4회 또는 5회로 확대함. 이는 시설 확충뿐 아니라 운영시간·회차 기준도 수요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해 온 사례임. ○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평일 운영 예시에서 마지막 회차는 16시부터 18시까지임.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부모 퇴근,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족은 평일 저녁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규제사항	○ 서울형 키즈카페의 설치·운영 세부사항은 서울시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으나, 현재 평일 운영은 주간 회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서울시가 제시한 2025년 평일 운영 예시에서 마지막 3회차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임.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부모 퇴근 및 이동시간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정은 평일 저녁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서울형 키즈카페는 사전예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시작 30분 전까지 온라인 취소가 가능함. 다만 취소석의 노출 시점, 즉시알림 여부, 미입장 발생 후 빈자리 전환 절차 등에 따라 당일 이용 희망자의 체감 접근성은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현행 취소석 수시예약 방식의 이용 편의를 점검하고, 필요 시 취소석 즉시알림 또는 자동대기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검토한 관련 법령에는 일률적인 운영 종료시각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다만 실제 운영시간 조정 시에는 서울시 운영지침, 자치구별 운영계획, 인력 및 안전 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맞벌이 가족의 생활시간과 공공 놀이공간 운영시간의 불일치 맞벌이 가정은 자녀 하원과 부모 퇴근 이후에야 가족 단위 외출·놀이 활동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그러나 평일 마지막 회차가 오후 6시에 끝나면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의 공공 여가 선택지가 제한됨. ○ 높은 수요가 확인된 공공시설의 저녁시간 활용 부족

	서울형 키즈카페는 높은 만족도와 재방문 희망, 주말 예약난이 확인된 시설임. 그럼에도 평일 저녁시간에는 기존 시설의 활용이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시설을 대규모로 조성하지 않고도 개선할 수 있는 이용기회가 남아 있음. ○ 야간경제 정책의 가족 체감도 보완 필요 서울시 야간경제 정책은 문화·체육·관광·상권·교통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나, 영유아·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족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퇴근 후 생활권 놀이공간'은 부족함. 서울형 키즈카페의 저녁 회차는 야간경제의 혜택을 가족의 일상으로 확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지역 일자리와 상권 연계 기회 부족 야간회차 도입 시 놀이돌봄, 시설안전, 환경관리, 예약·현장안내 분야의 추가 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기존 종사자의 단순 연장근로에 의존할 경우 근로여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육받은 교대·시간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함. 기대효과 ○ 가족 단위 야간 여가 선택권 확대 맞벌이 부모도 퇴근 후 자녀와 함께 공공형 놀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확대될 수 있으며, 아동의 놀이권과 부모의 가족시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 공공시설의 활용도 제고 금요일 저녁 유휴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대규모 시설 조성에 앞서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음. ○ 서울형 야간경제의 가족 친화성 보완 서울형 키즈카페의 저녁 회차는 생활권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야간 활동의 선택지를 보완할 수 있음. ○ 지역 상권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가능성
--	---

	이용 전후 가족의 저녁식사·서점·문화시설 방문 등이 인근 상권 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범운영 시 이용자 설문 등을 통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안전한 시간제 전문일자리 수요 발생 가능성 놀이돌봄·안전관리·환경관리·운영보조 분야의 교대·시간제 인력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 별도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과 근로여건을 함께 확보하는 운영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안전과 규제개선의 조화 운영시간과 예약기준만 시민 생활패턴에 맞게 유연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점검·보험, 보호자 동반, 정원관리 기준은 유지함으로써 안전을 훼손하지 않는 규제개선 모델을 만들 수 있음. ○ 우선 운영여건이 갖춰진 일부 시설에서 금요일 저녁 회차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회차별 이용률·추가 운영비·안전사고 및 민원·취소석 재예약률·종사자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함.
--	--